

I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1. 기본가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따른 영향은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도입으로 인해 책임준비금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보험사 당기순이익의 변동 심화로 인해 신용등급의 하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보험업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실질적인 영향 분석을 위해 가상의 신규 보험사 사례를 가정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해당 사례는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에 따른 영향 요인 극대화를 통한 분석을 위해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⁵¹과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검토 중인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⁵²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51)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은 초기의 기초율을 책임준비금 평가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준비금 평가에 있어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52)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은 매 회계연도말 최선의 추정에 의해 새로 기초율을 산정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현행유입가치법(Current entry value approach)과 현행유출가치법(Current exit value approach) 중 한가지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해 만기 5년인 정기보험만을 취급하는 단종의 신규 회사를 가정하고, 보험료는 매년도 초에 납입하고, 보험금은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외에 별도의 유지비용은 없는 것을 가정하고, 계약당 신계약비는 1,000원, 계약자 수는 1,000명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간 보험료는 2,536.⁵⁵ 원, 보험금 지급금액은 1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이외에 자산운용수익률인 추정 투자수익률은 10%로, 무위험이자율은 9%를 가정하였다.

연간 추정사망률은 초기 추정은 1차년도는 1.00%, 2차년도는 1.40%, 3차년도는 2.00%, 4차년도는 2.80%, 5차년도는 4.00%를 가정하였으며, 실제 보험상품 가격 산출시에는 연간 추정사망률을 20% 할증하여 각각 1.20%, 1.68%, 2.40%, 3.36%, 4.80%로 반영하였다. 다음에는 사례 분석 및 추정과 재무제표 산출에 사용된 제 가정에 대해 요약하였다.

- 회사는 만기 5년인 정기보험만을 취급하는 신규 회사
- 보험료는 매년도 초에 납입하고, 보험금은 12월에 지급
- 유지비용은 없음
- 계약자 수 : 1,000명
- 계약당 신계약비 : 1,000원
- 보험금 : 100,000원
- 추정 투자수익률 : 10%
- 무위험이자율 : 9%
- 연간 보험료 : 2,526.55원
- 연간 추정 사망률

<표 IV-1> 연간 추정 사망률 가정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또한, 보험료 가격 산정에 이용된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사망자와 생존자의 인원수를 구하면 1차년도에는 12명이 사망하여 2차년도에 생존자는 988명이 되었고, 2차년도에는 17명, 3차년도에는 23명, 4차년도에는 32명, 5차년도에는 44명이 사망하여 만기시에는 872명이 생존하였다.

<표 IV-2> 가격 산정시 사용한 생존자, 사망자 수

	x1	x2	x3	x4	x5	계
기초	1,000	988	971	948	916	1,000
사망	-12	-17	-23	-32	-44	-128
만기						-872
기말	988	971	948	916	872	-

가. 당기순이익 분석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초기 이익이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계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신계약비의 이연처리에 따른 상각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다른 회계처리 방법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로 인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99,627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는 X5년도에는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게 된다.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현행유입가치법과 같이 신계약비를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나 초기 이익인식을 하기 때문에 초기이윤 74,498원의 인식으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보다 x1년도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상품 판매에 따른 초기이윤을 1차년도에 모두 인식하였기에 x2년도부터는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것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즉,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상품 판매시점에서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을 하지만,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상품판매시점에서 상품판매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상품계약기간동안 기간의 경과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주요한 영업수익 중 하나가 보험료 수익이지만, 평가연도법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익이 아닌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환입이 주요한 영업수익의 근간이 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는 이연매칭법과 새로 도입이 예정된 자산부채법의 수익의 인식차이에 따른 것이다.

<표 IV-3> 기본가정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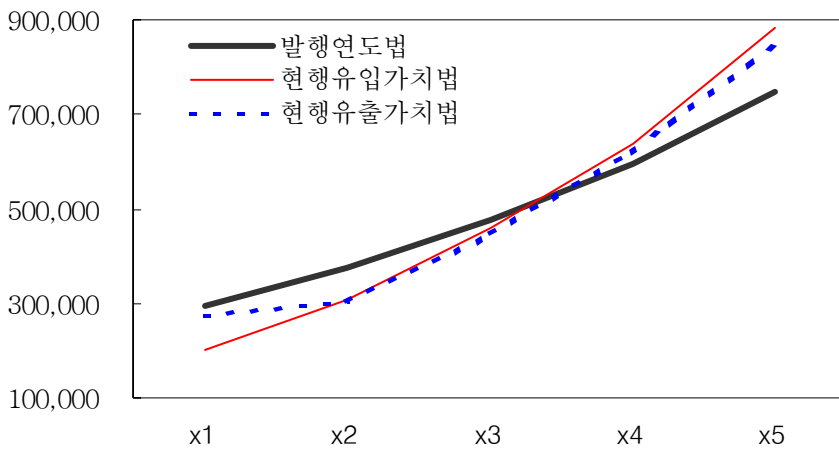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478,703	596,957	747,803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460,044	639,219	883,019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447,188	618,653	851,240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1차년도의 경우 발행연도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고, 반면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모두 상각하는 현행유입가치법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초기 이익의 인식으로 인해 초기 이익 금액만큼 현행유입가치법 대비 높게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었다. 반면 계약기간의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IV-1> 기본가정 그래프



2. 사망률 악화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률이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3차년도에 사망률이 10%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3차년도부터는 실제 사망률을 초기 추정대비 각각 10% 상승한 2.20%, 3.08%, 4.4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초기 추정 사망률, 가격 산출에 사용된 실제 사용 사망률, 그리고 실제 사망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사망률 악화 가정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실제사망률	1.00%	1.40%	2.20%	3.08%	4.40%

가. 당기순이익 분석

현재 사용 중인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은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의 경향이 있다. 기본가정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발행연도법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기초예정율이 변동될 경우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게 된다. 이 사례에서는 사망률이 악화된 3차년도에 발행

연도법의 경우에는 378,703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각각 265,492원과 273,478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다. 이는 평가연도법에서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통해 악화된 사망률에 따른 손실을 해당연도말에 모두 인식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표 IV-5> 사망률 악화시 당기순이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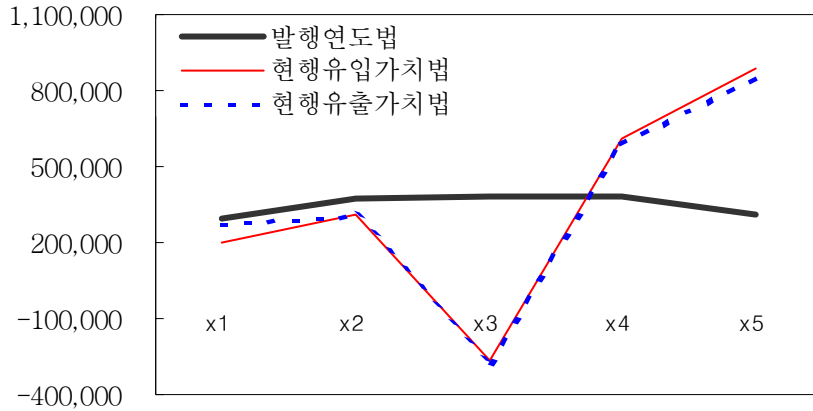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378,703	384,178	308,188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265,492	609,768	885,611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273,478	587,768	850,397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 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3차년도에 사망률이 악화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른 보험금의 증가, 보험료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감소만 나타내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악화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3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된다.

<그림 IV-2> 사망률 악화시 그래프



3. 사망률 개선시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률이 개선되었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3차 년도에 사망률이 1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3차 년도부터는 실제 사망률을 초기 추정대비 각각 10% 하락한 1.80%, 2.52%, 3.6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초기 추정 사망률, 가격 산출에 사용된 실제 사용 사망률, 그리고 실제 사망률을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사망률 개선 가정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실제사망률	1.00%	1.40%	1.80%	2.52%	3.60%

가. 당기순이익 분석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발행연도 법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개선된 3차년도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사망률을 사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3차년도에 678,703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보다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져서 각각 1,301,714원과 1,283,918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표 IV-7> 사망률 개선시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678,703	922,516	1,114,255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1,301,714	661,711	910,867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1,283,918	643,509	881,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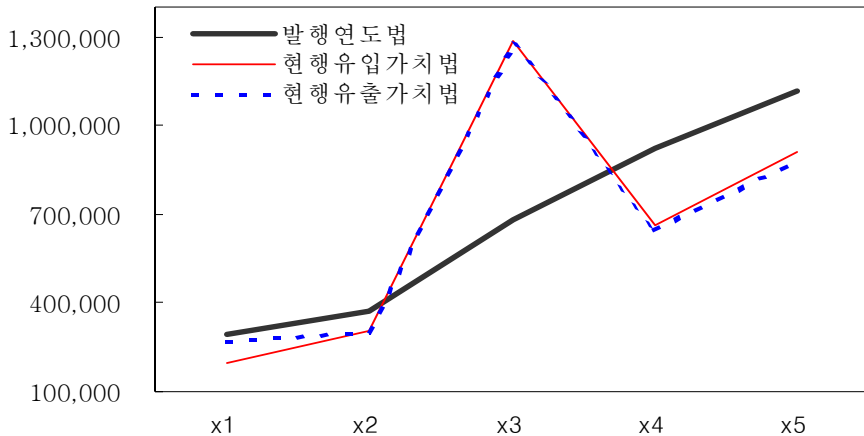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3차년도에 사망률이 개선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가 사망자 수의 감소에 따른 보험금의 감소, 보험료의 증

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증가만을 반영하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개선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3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 가정의 변동은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할 경우 변동성이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도 있다.

<그림 IV-3> 사망률 개선시 그래프



4. 이자율 하락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였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각각 2%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가. 당기순이익 분석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하락한 2차년도 말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373,712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이자율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과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196,511원과 192,522원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 수록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8> 이자율 하락시 당기순이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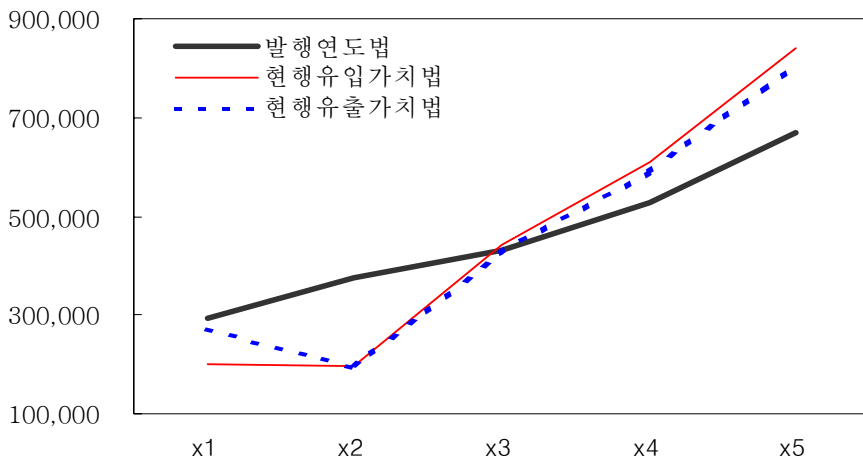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429,385	526,257	667,631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196,511	443,179	611,147	839,130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192,522	429,206	589,642	806,758

나. 그래프 분석

이자율 하락시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 IV-4> 와 같다.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감소만 나타내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여 2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된다.

<그림 IV-4> 이자율 하락시 그래프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 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가정의 변동은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할 경우 변동성이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앞의 결과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5. 이자율 상승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각각 2%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가. 당기순이익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은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할 예정인 평가연도법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한 2차년도 말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373,712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감소와 이자수익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411,500원과 402,370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3차년도와 4차년도 평가연도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미 인식하였기에 오히려 발행연도법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IV-9> 이자율 상승시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528,021	669,631	833,013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411,500	480,584	672,012	933,264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402,370	468,759	652,332	90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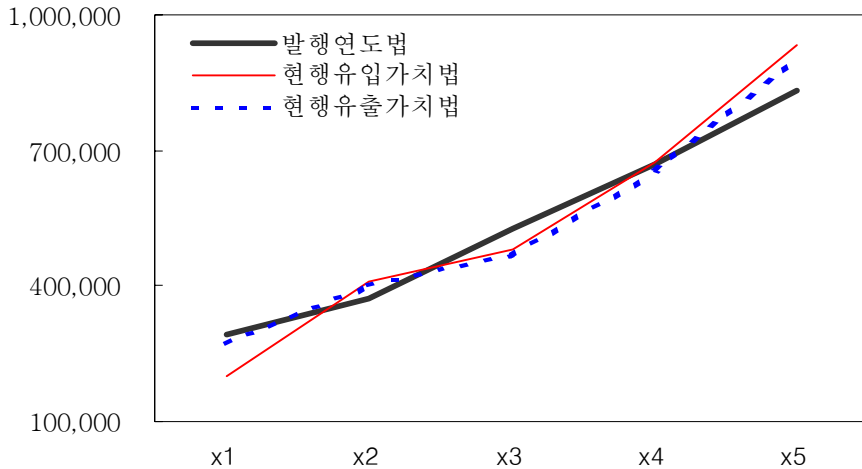
나. 그래프 분석

이자율 상승시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IV-5>와 같다.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당기 이자수익의 증가분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만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변화분을 이자율 상승시 회계연도말에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2차년도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크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제가정이 변동되는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IV-5> 이자율 상승시 그래프



6. 분석에 따른 시사점

기존에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인 발행연도법 대비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연도방식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이다. 즉,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판매시 제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채택할 예정인 평가연도법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매 회계연도말 최선추정에 의해 제기초율을 새롭게 산정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연매칭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상품의 보험기간동안에 걸쳐 나누어 인식을 하였으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화액만큼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통한 비용의 이연처리가 가능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이 예정된 평가연도법은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통한 이연처리도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연도법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 대비 이익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사용된 제가정 및 기초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국제보험회계기준 하에서는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초율의 변경에 따른 변화를 전액 손익으로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손익 변동폭의 확대에 의해 보험업계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보험부채의 공정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해당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감안한다면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으로 인해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에 따른 보험사의 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단지 이익의 기간 배분에 관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